

별이 된 아이들을 부르는 세월호 엄마 아빠의 노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노래를 불러서 네가 온다면

4·16합창단 지음, 김훈·김애란 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6년이 흘렀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모두 305명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많은 이들은 생때 같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날의 참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 우리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옛 그제 막을 내린 총선만 봐도 그렇다. 세월호 유족을 향해 막말을 퍼붓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고 끝까지 완주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가 선량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이다.

참사 이후 모든 시간이 4월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아이를 차가운 바다에 떠나보낸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이들에게 4월 16일은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바다에 뛰어들어 천천히 잠겨가



는 배를 건져올리고 싶은 그날"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의 부모, 일반 시민단원들이 함께 화음을 이뤄 노래하는 합창단이 있다. 일명 '416합창단'. 이들이 세월호 참사 6주기에 맞춰 합창단의 노래와 이야기가 담긴 책 '노래를 불러서 네가 온다면'을 펴냈다. 한마디로 416합창단이 짓고 (노래하고), 작가 김훈과 김애란이 글을 더한 '추모집'이다. 2014년 12월 작은 노래모임이 계기가 된 합창단은 지난 5년 동안 270여 회 공연을 진행했다.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노래모임에서 시작됐으며 아이들을 기억하는 현장을 방문해 노래를 한다.

책에는 '잊지 않을게', '어느 별이 되었을까', '약속해' 등 10곡의 노래가 담긴 CD도 수록돼 있다. 한국, 한국의 노래에는 합창단원들과 유가족들이 보낸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기록돼 있다.

김훈 작가는 참사 4주기를 맞아 안산의 유족들을 방문했을 때, 합창단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한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불행에 당한 사람들을 '재수없는 소수자'로 몰아붙이는 사회적 태도에 분노했다.

"416합창단은 아만적 현실 속에서도 슬픔과 그리움, 희망과 사랑을 노래했다. 그들은 세월호 관련 행사에서뿐 아니라, 쉴 새 없이 거듭나는 재난 재해 참사의 현장에서 노래했다. 그들의 노래는 일상의 사소한 구성에 바탕해 있었고,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슬픔을 감싸서 슬픔을 데리고 슬픔이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

수록된 노래 가사는 하나하나가 아픔이며 사랑이며 그리움이다. 합창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어느 별이 되었을까'이다.

"서쪽 하늘에 있나 어느 별이 되었을까/ 동트는



지난 2014년 12월 작은 노래모임이 계기가 돼 결성된 세월호합창단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의 부모, 일반 시민단원들이 함께 노래하는 합창단이다. 사진은 단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문학동네 제공>

전 밀려오는 저 별빛 네 숨결인가/ 그날부터 비로소 그날부터 잊을 수 없는 그 웃음/ 어둔 바다 깊은 하늘에 지울 수 없는 눈망울/ 어느 별이 되었을까 무슨 생각 하고 있을까"

함께 연습을 해온 박미리 합창단 지휘자는 노래는 끝이 없는 편지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한계가 없는 사람들의 소리는 이런 것인가 싶다. 노래는 떠

난 아이에게 묻는 여전히 낯선 안부인사이고, 힘이 되어달라는 간곡한 기도이다"라고 덧붙인다.

합창단은 세월호 뿐 아니라 이후 아픔의 현장에도 달려간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고 노동자들 등 다치고 쫓겨난 이들을 위로하고 노래한다.

작가 김애란은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의 노래를 듣는 건 '숨소리를 공들여 듣는 일'이라고.

"여기 자신들의 숨결로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 사이에 사다리를 놓는 분들이 있다. (중략) 슬픔 속에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분들, 그렇지만 하루하루 일상을 꾸리기 위해 오늘도 용기를 내야 하는 분들. 노래에 기대, 노래가 되어 더 먼 곳을 향해 가시는 분들."

<문학동네·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김금숙 지음

뉴욕타임스 '2019 최고의 만화책' 선정 작가 김금숙의 신작이 출간됐다. 조선 최초 불세비키 혁명가이자 페미니스트의 선구자인 김알렉산드라의 생애를 다룬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가 그것. 그동안 '꽃', '지슬' 등 굵은 역사 만화를 그려왔던 작가는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단편 '미자 언니'로 2016년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작품은 다음웹툰에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하나로 연재됐으며 '2019 레드 어워드'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 상을 수상했다. 특히 책은 러시아 전문가이자 언론인 출신으로 전기작가인 정철훈 작가의 원작 '소설 김알렉산드라'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러시아 아주 한인들의 고단한 삶과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김알렉산드라의 비극적 삶이 녹아 있다.

김알렉산드라의 본명은 알렉산드라 페트로보나 김(스탄케비치)다.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레닌이 이끈 불세비키에 가입해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다. 1914년 우랄의 한 벌목장에서 통역을 하며 착취와 차별에 고통받는 조선인 등 소수민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우랄노동자동맹을 이끌었다. 1918년 러시아 공산당 극동 지역 인민위원회(소비에트) 외교인민위원회(외무위원회)로 임명됐다. 같은 해 이동휘·김립 등이 한인 최초 사회주의 정당을 결성할 때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9월 하바롭스크를 점령한 일본군과 러시아 반혁명 세력 백위군에 체포돼 처형당했다. 사회주의 운동가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했지만 2009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서해문집·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집

강화길 외 지음

젊은 작가상은 등단 10년 이하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작품(중단편) 중 눈부신 성취를 보여준 소설에 한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젊은 작가상은 그동안 독자와 상호작용하며 굳건한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엔 선정된 신예 작가들의 작품에는 새로운 문학세계를 펼쳐나가는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2020년대로 진입하는 첫 해로 상의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는 대상을 수상한 강화길의 '음복'을 비롯해 최은영 '아주 희미한 빛으로', 김봉곤 '그런 생활', 이현석 '다른 세계에서', 김조엽 '인지 공간', 장류진 '연수', 장희원 '우리(畜舍)의 환대' 등이 실렸다.

강화길의 '음복'은 가부장제에서 모든 갈등을 간파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내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처음 참석한 시가 제사에서 낯설고 비호의적인 상황에 놓인 화자는 한 가족의 갈등 내력을 한눈에 꿰뚫어본다. 강 작가는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한겨레문학상, 구상문학상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저력있는 소설가다. 권역선 소설가는 '음복'에 대해 "더 아프고 시린, 생체기가 덧나고 아물고 다시 그렇게 되기를 반복한, 생의 표면에 새겨진 유구한 주저흔을 이토록 태연한 주저파의 배움으로 재생하고 있다. 강화길은 이제 어디로 가려는가. 나는 조마조마한데, 이보다 더 두근거리는 기다림은 드물다는 걸 알고 있다"고 평한다.

최은영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는 방향 끝에 꿈을 좇아 대학으로 돌아온 화자의 이야기다. 화자는 배려심이 있던 선배 여성 강사와 재회 후 헤어졌던 애뜻한 시절을 복원해낸다. 희미하지만 분명 존재했던 유대에 대한 단상을 풀어낸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투르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

투르게네프 지음, 임경민 옮김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별난 선구자들이 없었다면 진보는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사색적인 햄릿들은 애당초 자신들이 철학적으로 논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돈키호테와 같은 유형의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역사책을 덮어야 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햄릿'과 '돈키호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두 작품을 모두 읽지 않았다고 해도 그 줄거리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두 인물을 인간 본성의 양 끝에서 서 있는 인물로 보고 그 유형을 비교·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투르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가 그것.

저자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소설, 시, 희곡, 산문 등 모든 장르에 걸쳐 창작 활동을 펼쳤다. 저자는 햄릿과 돈키호테를 각각 '철저한 자기분석과 이기주의, 불신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인물', '용감하고 자유로우며 앞뒤 재지 않고 행동하는 인물'로 본다. 전자와 창조된 것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후자는 무언가를 창안한다는 것이다.

책은 1장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같은 듯 다른 인생', 2장 '햄릿과 돈키호테', 3장 '햄릿과 돈키호테 안의 광기' 등 총 3개의 장과 저자가 직접 그린 그림을 포함한 다양한 도판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누구의 마음속이나 햄릿과 돈키호테가 있다. 인생은 끊임없이 다투는 이 두개의 원리들 사이에 벌어지는 끝없는 화해와 싸움일 뿐이며, 이는 이기주의와 헌신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공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한다.

<지식여행·1만15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